로봇에 '자비희사' 새기다

현불논단



덕안 스님
조계종 미디어홍보실장

지난 5월 6일, 향냄새가 번지는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스님들 앞에 합장하고 선 이는 사람이 아닌, 휴머노이드 로봇이었다. 연비 의식을 통해 로봇의 팔에는 향불의 자국이 새겨졌고, 목에는 108염주가 걸렸다.

기술이 인간을 닮아가는 시대다. 인공지능(AI)은 언어를 부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구도의 자세를 취한다. 이 낯설고도 경이로운 풍경 앞에서 우리는 다시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한다. "자비의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날 열린 조계종 최초의 '로봇 수계식'에서 로봇 행자들은 석자(釋慈)·가비(迦悲)·모희(牟喜)·니사(尼捨)라는 법명을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내린 이 이름들은 한 글자씩 떼어 다시 모을 때 그 깊은 의중이 드러난다. 석·가·모·니-석가모니, 자·비·희·사-자비희사. 곧 사무량심(四無量心)이다. 네 로봇이 한자리에 모여야 비로소 '석가모니 자비희사'라는 문장이 완성된다. 부처가 평생 설한 자비의 마음을, 이제 한국불교는 기술의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 위에 새기기 시작한 것이다.

로봇 행자들은 '생명을 존중하고 해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며 기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로봇 오계'를 받았다. 스스로를 다스리겠다는 엄중한 서원인 수계의 대상이 인간을 넘어 기계로 확장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비와 책임의 문제를 더 이상 인간만의 전유물로 남겨둘

'석가모니 자비희사' 뜻 담긴 로봇 수계
'로봇 오계' 통해 '생명 존중' 엄중 서원
백남준 화두 이어 로봇에 자비·책임 심어

수 없는 시대가 왔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이 사회의 방향을 움직이는 오늘날, 기술이 어떤 가치 위에서 작동해야 하는가는 이제 미룰 수 없는 화두가 됐다. 로봇 오계는 결국 인간이 기술을 향해 비추는 '윤리의 거울'이며, 그 거울을 만든 우리 자신을 향한 서원이다.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에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예술적 문답이 있었다. 그 한복판에 백남준이 있다. 독실한 불자였던 백남준은 1964년 '로봇 K-456'을 제작해 뉴욕 거리를 걷게 했다. 기계를 인간존재를 투영하는 또 다른 거울로 보았던 그는 1982년 이 로봇이 교통사고를 당하자 이를 '21세기 최초의 참사'라 명명했다. 감성을 지닌 기계,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 위에 놓인 기술. 그가 60년 전부터 던져온 이 화두는 1974년 'TV 부처'의 '전자 선(電子禪)'으로 이어지며 기계와 부처가 마주 앉는 파격을 선보였다.

그로부터 60여 년이 흐른 지금, 조계사 마당에서 실제 로봇이 부처 앞에 합장하며 그 화두에 응답했다. 백남준이 기술과 인간의 경계를 허물었다면, 오늘의 한국불교는 그 허물어진 경계 위에 '자비'와 '책임'이라는 실천적 좌표를 찍고 있다.

이번 수계식이 성사되기까지 종단 안팎의 연대도 빛났다. 최효숙 경기도의회 의원과 손정익 ㈜YH 대표이사의 협력으로 성사된 이 풍경 자체가 이미 하나의 '연기(緣起)'였다. 이제 그 연기의 그물망은 인간과 기계, 생명과 비생명을 넘어 종교와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중심은 더욱 분명해져야 한다. 60년 전 백남준이 고독한 로봇을 거리로 내보냈다면, 오늘의 한국불교는 그 로봇에게 자비희사의 마음을 심었다. 그 유구한 흐름 사이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연기가 짜여가는 엄숙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

두 스승 이야기

세간과 출세간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1996년 3월 불교원전전문학림 삼학원에 입학함으로써 시작한 나의 불교 공부는 이제 만 30년의 시간을 쌓아가고 있다. 적지 않은 시간이지만, 내가 얼마나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헤아려보면 늘 부끄럼이 앞선다. 어느 순간에는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다 싶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아득해지는 널뛰기를 반복하면서 조금씩이나마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그런데 그 공부 과정을 되돌아보면 나는 참 스승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도반 복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도반들도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등장했거나 스승에게 배운 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찾아왔음을 떠올리면 스승에게 진 은혜와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삼학원 과정을 하면서 만난 스승은 가산 지관 스님이다. 그분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설로 삼학원을 만들었고, 그 안에 한문 불전은 물론 산스크리트와 빨리어 원전을 읽을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하셨다. 동국대학교 교수이자 총장까지 역임한 분이셨지만, 공식적인 석·박사 과정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진짜 공부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다.

5년 과정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다는 것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그 스승과 함께하면서 배운 것들은 나의 학자 생활은 물론 교수 생활까지도 지탱해 주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 그분은 평

30년 불교 공부 중 만난 지관·무산 스님
두 스승 가르침, 삶을 지탱하는 자양분 돼
교사는 아이 위한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생 공부를 놓지 않는 수행자셨다. 바쁜 총무원장 일과를 마친 후에도 꼭 연구원장실로 퇴근해 〈불교대사림〉 원고를 들여다보셨고, 나를 만나실 때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도 기꺼이 물으셨다. 그분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판과 사판의 걸림 없음이라는 지향을 간직할 수 있게 됐다.

스승의 날 즈음하여 떠올리게 되는 다른 불교 스승은 설악 무산 스님이다. 필명인 오현 스님으로 세상에 알려지신 그분과는 계간 〈불교평론〉 편집위원장과 발행인이라는 인연으로 만났다. 그분이 창간하신 이 대중학술지는 불교학계의 전문 지식과 불교계 전반의 연결을 목표로 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웃종교인들에게 부러움을 샀다. 어느새 100호를 훨씬 넘긴 이 의미 깊은 학술지는 스님의 유지를 이어받은 많은 사람들이 모금에 참여하고 글을 기고하기도 하여 불교계를 넘어 종교계를 상징하는 대중학술지가 됐다.

설악 무산 스님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선시를 이어받으면서도 한글로 온전히 전환하여 친근하면서도 깊은 뜻을 담아내셨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천만 낙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다 위에 떠 살던 늙은 어부가 노을이 붉디붉었던 다음날에는 그만 보이지 않는다는 절창을 담고 있다. 만나 뵐 때는 헤아리기 쉽지 않았던 그분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제야 조금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이렇게 두 분의 불교 공부 스승을 떠올리면서 오늘날 우리 교사들의 고통이 온몸으로 다가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스승의 날'이 교사들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여러 부질없는 세상 이야기들에 유의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것은 그분들을 위하는 일이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다.

社 說

화합과 보살행으로 공동체 밝히자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았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투신 뜻은 무명과 번뇌 속에서 길을 잃은 중생들에게 스스로의 본래 자리를 깨닫게 하고, 자비와 지혜로 서로를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부처님오신날은 축제와 장엄의 날인 동시에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되돌아보는 참회와 서원의 날이어야 한다.

올해 봉축은 더욱 각별하다. 우리 사회는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른다. 조계종 역시 총무원장 선거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의 계절일수록 우리는 더욱 경계해야 한다. 선거는 공동체를 위한 공심의 장이어야지, 탐욕과 아집을 드러내는 다툼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동체 되돌아보는 참회와 서원의 날
미래 결정 사회 · 종단 선거, '공심'으로

부처님께서는 모든 갈등의 근원을 탐진치 삼독심에서 찾았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아집, 권력과 이익을 움켜쥐려는 탐욕, 상대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성냄이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 불교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하다.

연등은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상징이다. 불자들이 손에 든 연등 하나하나는 자신의 무명을 밝히겠다는 서원이어야 한다.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언어를 쓰겠다는 다짐이어야 한다.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진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겠다는 원력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연등회의 진정한 의미이자 부처님오신날의 정신이다.

특히 종단의 선거를 앞둔 지금, 불교계가 먼저 화합과 공심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자리와 권한을 얻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종단과 불법을 위해 누가 더 낮은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는가를 묻는 과정이어야 한다. 사람과 계파에 기대어 다투는 순간 정법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 선거가 끝난 뒤 남는 것이 상처와 분열이라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패배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불교의 화쟁 정신이다. 원효 스님이 보여준 화쟁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논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여는 자비의 실천이었다.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시대일수록 불교는 사회 통합의 정신적 구심이 되어야 한다. 불자들이 먼저 혐오와 분열의 언어를 멈추고, 이해와 존중의 언어를 회복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해 살아가는 연기의 세계를 가르치셨다. 나만 옳고 나만 살아남겠다는 생각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린다. 정치도, 종단도, 사회도 마찬가지다. 상대를 쓰러뜨려 얻는 승리는 오래가지 못한다. 함께 살아야 나도 산다는 연기의 지혜를 회복할 때 갈등의 시대를 넘어설 수 있다.

연등의 불빛은 잠시 밤거리를 밝히고 사라지지만, 자비와 화합의 원력은 세상을 오래 밝힌다. 올해 부처님오신날만큼은 불교계와 불자들이 먼저 자신을 낮추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부처님 탄생을 찬탄하는 가장 참된 길이며, 오늘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할 봉축의 의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아름답고 청정한 절
대한불교조계종
봉 녕 사
봉녕사승가대학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주 지 진 상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6-54
전화 031)256-4127 www.bongnyeongsa.org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